



# 곡성 문화

2015년 7월 1일 | 창간호

<http://www.gs-culture.or.kr>

발행인 : 곡성문화원장 고광운 편집인 : 빙신호

## 문화비전 선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 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에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 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지역 여러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지가 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일회적·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문화 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 한다.

성당의 은은한  
새벽중 소리  
분부신 아침 햇살  
불러 모으면  
동악산 통명산에  
정기 어리고  
섬진강 은어때  
옷깃 펼친다  
오호라 풍요로운  
꿀짜나라 곡성  
길이길이 빛나라  
우리의 보금자리

곡성팔경 수려한  
천혜의 땅에  
치포 치포 관광열차  
날개를 펴면  
호녀심청 살아오는  
충효의 고장  
해마다 심청축제  
장관이르고  
오호라 살기 좋은  
꿀짜나라 곡성  
영원토록 사랑하라  
우리의 요람

곡성찬가(우금수)





● 창간사

# 효경 칭찬생활문화 운동에 앞장서서 일하는 곡성문화원

우리 고장 곡성의 자연, 역사, 사상, 예술, 민속 등 조상들의 자취와 향토의 모습은 문화의 발상지이고 문화유산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장 곡성은 임진왜란과 동학란 등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구국의 물결이 파도쳐 의절의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일제에 맞서 독립 운동과 저항의 움직임으로 애국지사 순절이 잇따랐으며, 6.25의 비극 현장인 태안사 경찰 총흔탑 등 온갖 탄압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룩한 조상들의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의 자취가 곳곳에 남아 있어 '의절의 터'라 부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향토인 곡성은 온갖 역경 속에서도 향토의 특성과 전통성을 잃지 않고 있어 더욱 애착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 곡성은 예로부터 충·효·예를 바탕으로 한 ‘의절의 터 곡성’이라는 정신적 유산을 이어받아 전통과 문화의 꽃을 피워 왔습니다. 오순도순 정답게 인정의 꽃을 활짝 피우며 살아가는 내 고향 어르신들로부터 배운 ‘따뜻한 마음 여유로운 맛’ 그리고 ‘낙엽귀근 落葉歸根’이라는 말을 교훈 삼아 정년 후 고향땅에서 낙엽이 되었으니, 이제는 또다시 내 고향 곡성 땅에 썩은 거름이 되어 죽는 날까지 고향을 위해 헌신 봉사하며 ‘아름다운 마무리 영원한 스승’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지난 해 12월 29일 제 14대 곡성문화원장 취임식 전에서 존경하는 여러 어르신들과 군민에게 밝힌 다짐이자 약속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효경칭찬 생활문화와 후학들의 진로를 밝혀주는 일에 열정과 보람 가득 신명나게 일하는 원장이 되어 그 크신 은혜에 보답해 드리고자 우리 곡성문화 소식지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역사에 걸쳐 형성된 문화는 그 어떤 강한 힘보다 더 강인한 힘을 가지고 있기에 문화는 교육의 힘에 의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 소식지를 통해 곡성 특유의 전통문화 계승과 선진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군민의 효경 칭찬생활문화 운동에 앞장서서 일하는 문화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본 소식지는 의롭게 살아 온 ‘의절의 터 곡성의 얼 심기’ 푸른산·맑은 강·살기 좋은 곡성의 모습 제자리 찾기 등,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곡성의 자연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헌신·봉사하는 각종 지역사회 단체와 애정신으로 묵묵히 일하는 군민들의 효경 칭찬 미담사례를 발굴하고 널리 홍보하여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곡성 그리고 새로운 향토 문화의 가치를 창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한편 풍부한 삶의 인생경험과 삶에서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선배 세대와 새내기 세대 간 문화적 소통을 통해 보배로운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해 나가는 세대를 넘어 전통과 문화를 이어주는 인생나눔 교실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지속적인 효경 칭찬 생활문화 운동으로 소통, 나눔, 배려 등 향토 애호정신을 고취하고 확산시키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랍니다.

곡성문화원장 고희은

● 축사

# 우리군 문화인의 대변지로 거듭나 주시길

곡성을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곡성문화를 아끼고 보존해오신 문화인 여러분!



인류는 전통과 문화가 없는 민족과 국가는 없다고들 합니다.

어느 조그만 마을도 전통과 문화가 있다는 의미이고 잘 가꾸고 보존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흔히들 유대인들은 유대교라는 문화와 히브리어라는 언어의 공통의 정체성을 띤 문화속에서 수천년동안 세계 떠돌이 외인생활을 하면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왔으며, 13세기 세계 최강의 제국을 건설했던 징키스칸의 몽골은 자신들의 문자를 잃어 버려, 찬란했던 몽골제국의 전통과 문화는 전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듯 전통문화의 보존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전통과 문화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월동안 경험하고 축적한 지혜와 지식입니다. 이러한 선조들의 축적된 전통과 문화를 잘 보존하고 발전시켜 후대에 전해주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임무일 것입니다.

우리 곡성은 조그만 전통적인 농촌지역으로 그동안 생계문제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으로 이러한 문화와 전통을 발굴·보존하는데 소홀히하여 왔던게 사실입니다.

다행히 근래에 이르러 지역의 여러 선각자분들이 문화원을 중심으로 우리의 문화를 외부에 알리고 잊혀져 있던 우리 문화를 발굴해가고 있어 군수로서 정말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발간하는 ‘곡성 문화’는 우리지역의 전통과 자랑스러움을 외부에 알리고 보존하는데 기여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곡성문화’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곡성문화원 고희은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우리군 문화인의 대변지로 거듭나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곡성군수 유근기

# '지역활성화 지역' 선정

곡성군이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낙후도가 심한 전국 22개 시군을 상대로 지정한 '지역활성화 지역'에 선정돼 300억 원 범위내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지역활성화 지역은 성장축진지역(전국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당 도지사가 낙후도 수준을 평가해 도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도입된 제도다.

## 낙후된 기반시설에 300억 원 지원

이번에 도내에서는 곡성군을 포함해 고희, 신안, 완도, 함평 등 5개 군이 선정됐다.

국토부는 올해 도입된 이 제도에 따라 전국 22개 시군에 대해 '지역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으며, 이들 지역에는 타당성이 인정되는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을 위해 시군당 300억여 원 범위내 국비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곡성군은 지역활성화 지역에 선정돼 앞으로 최대 300억여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낙후된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 축사

# 새로운 문화의 힘을 길러주는 길잡이

3만여 군민이 한결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고장은 섬진강과 보성강이 흐르며, 자연경관이 수려한 전국 제일의 청정지역이요, 심청이아가기가 있는 효의 대표적인 고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태안사, 도림사, 유평로 장군, 경찰충전탑 등 많은 문화유산이 구석구석에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는 조상들이 남겨주신 자랑스런 얼과 자취를 알뜰히 보존하여 후세에 전해주고 전통문화의 터전위에 새 시대의 문화를 가꾸는데 정성스러운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나 여러모로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곡성문화원에서는 우리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꾸준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곡성만이 지닌 값진 전통과 뿌리를 찾아 문화곡성의 긍지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간된 문화원 소식지는 우리 곡성에 산재해 있는 충·효의 문화자원을 자료로 발굴하여 곡성의 전통문화 유산을 되살리고 새로운 문화의 힘을 길러주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책자 발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아낌없는 찬사를 드리며, 앞으로 곡성의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안내서 역할로 군민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곡성군의회 의장 李國燮

#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한국관광 100선', '베스트 그 곳' 선정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함께 발표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는 포털사이트의 최다검색어, 관광객 증가율 등의 데이터를 통한 계량 평가와 관광매력도에 대한 여행 전문가들의 정상적인 평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이와 함께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이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015년도 '베스트 그 곳'에 전국 9개 지방자치 단체중 1곳으로 최종 선정됐다.

앞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연말까지 다양한 스토리텔링 여행 콘텐츠를 제작해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 SNS 채널 및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선정 지역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다.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은 1998년 전라선 직선화로 폐선이 된 17.9km 구간 중 섬진강기차마을을 따라가는 13.2km와 구 곡성역, 철도시설을 관광자원으로 재활용해 조성된 관광지로 명실상부한 국내외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 지역의 보물,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은 섬진강변의 폐철로를 활용해 청정 자연환경을 연계한 특색 있는 지역 창조관광자원의 산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객들에게는 볼거리 및 즐길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의 메카로 도약할 계기가 될 전망이다.

# 100세시대. 행복한 삶을 대비하는 교육, 곡성에서 시작합니다.

22세기 약속의 땅, 청정수도 곡성은 동약산과 통명산 아래 수려한 섬진강이 펼쳐진 곳으로 쾌적하고 풍요로우며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특히 심청의 효심이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 인심 좋고 충의를 숭상하여 많은 호국선열들

## 더불어 배우며 미래를 일구는 곡성인 육성의 요람

이 배출된 유서 깊은 고을이기도 합니다. 자연이 아름답고 인심이 후덕한 우리 곡성은 100세 시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고장이라 여겨집니다.

교육은 미래지향적인 활동입니다. 미래사회를 살아갈 다음 세대의 학생들에게 현재의 필요(need)를 충족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장차 변화될 세상과 삶의 방식에 적절히 대비하고 주체적으로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미래 핵



심역량을 길러 주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와 교사는 자녀와 학생이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기를 바라고, 또한 그렇게 키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생애 목표를 세우고,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체품, 덕품, 지품의 삼품 인증을 통해 몸과 마음이 바르고 건강한 학생을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GMS 좋은 아침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 마인드를 제고하고, 즐거운 학교 분위기를 조성을 통해 학습력 향상을 꾀하였습니다. 또 「100세 시대 행복

누리 생애플래너」와 「100세 시대 행복누리 통장」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계획 뿐 아니라 전 생애를 설계하는 기회와 경제 마인드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및 지역단위 인성교육 네트워크 사업에 선정되어 배움중심 혁신수업, 심청의 효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동안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곡성 교육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100세 시대 행복한 삶을 대비하는 곡성교육 실현을 위해 모두가 으뜸이 되는 행복한 학교, 명품 학교를 만들어 작지만 강한 곡성교육을 실현하는데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전라남도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기식



## 삼품(人品, 技品, 名品)교육을 통해 세계로 비상하는 전남조리과학고등학교

### 전국 유일의 공립 조리특성화고등학교

우리 고장 곡성읍에 자리한 전남조리과학고등학교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학생을 모집하기 어려운 실업계 고등학교에 불과했다. 1951년 곡성농업고등학교로 개교한 이래 곡성실업고등학교, 곡성종합고등학교, 전남조리과학고등학교(2006)로 교명을 개칭하였다. 전남은 물론 광주 뿐만 아니라 전북,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경남지역 등 전국 각지에서 조리를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가장 오고 싶어 하는 학교로 발돋움하고 있다.

### 1품 人品교육

#### 바른 인성과 건전한 학생 문화 창조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인사를 잘하면 성공한다는 교훈아래 언제나 밝은 미소로 인사를 잘 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 열심히 배우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학생회를 통해 다양한 자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활평점제와 자치법정을 운영하는 등 바른 인성교육에 힘쓰고 있다.

### 꿈과 끼를 키우는 다양한 방과후활동

세계적 조리인이 되기 위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실무 외국어 회화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과후에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한

식, 일식, 양식, 중식조리사반, 커피바리스타, 제과기능사, 전산화계반 등을 운영한다. 학생들은 졸업시 7종의 조리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 2품 技品교육

#### 전문조리인으로 거듭나는 취업역량 강화 사업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과 명장, 한과 명인 등 각 분야 전문 조리인 초청 수업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창업요리경연대회와 졸업작품전을 통해 자신이 창업하고 싶은 메뉴를 개발하여 발표하거나 그 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공개하고 평가받기도 한다.

### 취업맞춤형(MC) 교육과정 도입

전남조리과학고의 취업률은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도 상위에 속한다. 올해부터 취업맞춤형(MC)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주)Fnc시스템, 베비에르과자점, 유캐슬호텔과 협약을 맺고 교육과 동시에 취업하기로 했던 업체로 파견하는 현장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3품 名品교육

#### 세계는 우리의 일터! 글로벌세프로서의 준비

학생들이 세계를 자신의 일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외국어와 기능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전남교육청 주관 하에 캐나다 드림헬러고등학교에 3개월간 머물면서 조리, 취업교육과 캐나다 현지 외식업체 현장 실습을 통하여 글로벌 세프로서의 꿈을 심어주고 있다. 올해는 중국동방조리과학고와의 자매결연으로 중국과의 교류도 시작할 계획이다. 2014년부터 중소기업청 비즈쿨을 운영해 왔으며, 중소기업청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공모결과 선정되어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마인드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였다. 꿈·끼·행복·창의 체험을 주제로 열리는 '2015. 행복학교 박람회'에 참가하여 한식, 양식, 제과, 커피, 중식 창업동아리를 중심으로 학교 홍보를 위한 체험부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 각종 대회 참가 수상 및 스카우트 우승

지난해 제49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본교 방채현 학생이 제과분야 동상을 수상하였다. 이어 2015년 1월 4일 방영된 KBS1 TV '스카우트' 프로그램 '라마다호텔' 편에 출연한 2학년 황채현 학생이 최종 우승을 하여 장학금과 라마다호텔에 입사할 수 있는 영광을 차지했다. 2015년 5월 대한민국 국제요리경연대회에서 개인전시 부문과 단체 라이브부문에서 금메달 등 수상을 휩쓸었다. 2학년 신지우, 이수미 학생은 여성가족부가 주최하는 청소년 교류활동에



모하여 불가리아, 중국과 교류하는 기회를 얻기도 하였다.

앞으로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꿈을 조리하며 세계로 비상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와 협력하여 세계로 비상하는 전남조리과학고등학교로 우뚝 서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전남조리과학고등학교장 김선경





# '효'를 실천하는 심청의 고장

우리고장은 예로부터 충효의 고장이 다. 우리나라 충신의 대표적인 고려 개국공신 장절공 신승겸장군이 태어난 곳이며, 비록 소설 중의 주인공이지만 만고 효녀 심청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민족이 지켜온 아름다운 전통의 하나인 '효'를 실천하는 모범 민족이었다. 그래서 '동방의 예의지국'이라고 불릴 만큼 예의를 숭상하는 민족이라고 칭한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를 지키며, 어른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 문화는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이요, 자랑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은 어떠한가? 서양문화의 급속한 전래로 대가족제도가 무너지고, 핵가족 시대로 변화하였고, 급변하는 세계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할아버지 밥상머리 교육'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가정윤리가 무너지면서 사회윤리도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오직 자기만족과 자기중심 문화가 형성되면서 우리 아름다운 효행의 전통이 무너지는 것은 몹시 안타까운 일의 하나이다.

우리고장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범죄 없는 마을' 연 10년을 차지하는 쾌거도 넓게 생각하면 효행의 뿌리에서 얻은 결실이라 말하고 싶다.

'효'란 무엇일까? 이 세상에서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다. '효'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위하여 자식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다. 우리가 흔히 효도를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지만 효도는 어렵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깝고 쉬운데 있다.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효도의 첫걸음이라 생각한다.

그 실천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부모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가장 으뜸가는 효도의 길이요, 더 나아가 부모님을 물질적으로 봉양하고 육체적으로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여긴다.

그러면 부모님께 어떻게 '효'를 실천할 것인가?

첫째,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둘째,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것이다. 셋째, 훌륭한 인물이 되어야 한다.

옛날에도 자식이 공부를 잘 해 과거에 합격하여 높은 벼슬길에 오르면 부모님은 물론 가문의 영광이요, 고장의 자랑이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고 가르쳐 주신 부모님께도 나라에서 벼슬을 주었다.

그것은 세상에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것이요 흔히 입신양명(立身揚名)이라고 말하였다.

지금은 꼭 공부만 잘해서 입신출세(立身出世)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이나, 예술분야, 또는 남을 위하여 봉사하고 실천하여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람들도 있어 세상에서 꼭 있어야 할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들도 효도의 실천이다.

효의 작은 실천부터 하도록 노력하여 보자.

항상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도록 노력하며, 부모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도록 노력하면서, 자신의 일에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지 않으면서 부모님 기대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꾸준히 노력하는 아들 딸이 되도록 힘쓰는 일이다.

중요한 일은 항상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상의 한 뒤에 결정하는 습관을 갖고, 형제자매간에도 충분한 의사소통과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배려하며 싸우지 않는 것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서로 지켜야하는 도리가 있는데 저 유명한 맹자께서는 '오륜'이라고 했다. 그 중 '부자유친'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효'를 실천하는 자랑스러운 심청의 고장 사람이 되기 위해 모두 노력하고 군민운동으로 승화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싶다.

(現)국조단군송모회 이사장, (前)곡성군 문화원 원장 김학근

# 인간사에 불의(不義)이었던 불행(不行)일지이다.

무더운 유월의 어느 날 우리집 연운당 경내에 있는 대나무밭 밑 창의루(병자창의)에서 저의 조상님들의 문헌을 보며 사색에 잠겨 보았다.

무릇 문화는 미풍양속을 보존 발전시키고 혼탁한 사회를 정화하는가 하면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이번 곡성문화원에서 심청의 효가 살아 숨쉬는 의절의 터 곡성문화소식지를 발행한다고 하니 참으로 축하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우리는 섬진강과 보성강, 통명산과 동약산이 어우러져 태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존된 아름다운 곡성 고을에서 태어났음에 자랑과 긍지를 느끼며 살아야 한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 나는 6월을 맞이하여 한순간이라도 내 조국 대한민국을 찾기 위해 사랑하는 부모, 처, 자식, 형제를 버리고 싸우다 순국하신 선열들을 생각해 봤는가? 충신 열사들의 후손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들은 우리 국가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고 있는가? 충신 열사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왜적에 붙어 고무거각에서 호의호식하며 오히려 독립투사들에서 총칼을 들이대며 동족상잔을 일삼았던 그 후손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소문에 의하면 충신 열사들의 후손들은 만리타국에서 조국을 그리며 근근이 생활하는가 하면 친일 후손들은 혹은 높은 지위에서 혹은 부호한 생활로 인생을 즐긴다하니 높은 지위에 있는 자의 가족의 국적이 혹은 외국의 국적으로 자기만의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는 지금 총성 없는 전쟁 중에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의 자녀들이 조국을 지키기위해 즐겁게 대한민국 군인이 되어 주겠는가?

아... 슬프도다.

왜적과 싸워 조국이 광복되니 친일 일가들은 행복을 누리고, 항일 순국열사들의 후손들은 궁핍한 생활을 한다하니 이것이 현실이라면 무엇보다 먼저 사회교육, 가정교육, 학교교육의 도덕적 수준



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할 때라고 본다.

평소 학교교육보다 가정교육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다. 어릴 때 집안에서 부모님께 듣고 배웠던 일들은 몸속에 각인되어 쉽게 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다 같이 자손만대를 생각하여 가정에서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른 대할 때의 예절, 선생님을 대할 때의 예절, 친구간의 친교할 때의 신의를 잘 가르쳐 놓으면 그 가운데서 저절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며 선생님을 존경하는 품격 높은 인재로 성장할 것이요, 더 나아가 애국애족 정신이 투철한 일등 국민이 되리라고 감히 말한다.

간혹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지위는 높은데, 대기업을 경영하는데, 심오한 학문을 설파(說破)하는데도 행동의 도덕적 수준은 보통사람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모두가 도덕심이 부재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번 아차 실수하면 그 실수가 천년만년 전해온다. 一古語(일고어)에 一失足(일실족) 千古恨(일실족해 천고한)이란 말이 있듯이 잘못된 행실을 일삼으며 머물다간 발자취는 아주 오랜 세월동안 지워지지 않은 오명으로 남는다는 것을 나는 듣고 있다. 누구의 부모가, 조부모가 무엇을 어떻게 적선(積善)했다는 말을.....

이렇게 잘하고 잘못된 일들이 계속 후세에 전해오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육신은 언제인가는 죽어 없어져도 그 사람의 행적(行蹟)은 영원히 전해 오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사에 제일 무서운 도덕적 율법(律法)이라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그대들이여, 평화(平和)를 빌면서 이르노니 인간사에 불의(不義)이었던 불행(不行)일지이다.

곡성군 노인회장 류종표

## 다문화가족 미담

# 베트남에서 온 효부

베트남인 결혼이민자로서 2007년 1월에 입국하여 남편(45세)과 결혼하고 시어머니(84세), 자녀(5세, 3세)와 함께 전남 곡성군 오곡면에서 생활하는데 마을 주민들로부터 효부, 어진아내, 장한어머니로서 칭송이 자자하여 2013년에는 곡성군수님으로부터 효부상을 수상한 레티땀을 미담이다.

## 곡성군수 효부상 수상

결혼 이듬해에 시어머니가 눈길에 낙상하여 하반신이 마비되는 큰 사고를 당하여 병원과 좋다는 약은 다 써봤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화병환자가 되어 대소변을 받아내

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어렵고 힘든 살림살이 속에서도 어린 자녀들을 보살피고 아들도 하지 못하는 시어머니 대소변을 받아내는 등 간병에 온 정성을 다 쏟았다.

낮에는 논농사, 고추농사 등 농사일하고 밤에는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어려운 가정 살림을 혼자서 꾸려가야 했다.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일을 5년동안 하면서 바쁜 와중에도 다문화가정 행사등에 적극 참석하여 연로하시며 병중에 계시는 시어머니와 가족들을 위해 한국음식을 열심히 배워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열심히 병수발을 했건만 시어머니는 병세가 약

화되어 결국엔 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시간만 나면 병원에 들러 간식거리를 챙겨드리고 외롭지 않도록 말벗이 되어드리는 등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는 현명한 사람으로 마을의 자랑이 되고 있다. 짧은 글로 다 표현이 어렵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으로 효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것만으로도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항상 시어머니와 남편 자녀들에게 자신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면서 겸손하고 착한 마음으로 이웃과 어울려 사시는 정말 본받고 싶은 분이다. 레티땀은 진정 마음씨가 아름다운 현대판 사임당과 같은 분이 아닐까?

류재주 회원

## 삼남에서 으뜸인 동악산(動樂山) 아따 산에 오길 참 잘했다.

어버이날을 맞아 모처럼 자녀들과 함께 곡성의 진산인 동악산(735m)에 자리한 천년 고찰 도림사로 향하며 추억을 더듬어 보았다. 화창한 날씨에 장중한 산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고 맑디맑은 계곡수가 절경을 이룬 암반과 울창한 숲길이 곳곳에 펼쳐져 역시 신록의 힐링 여정을 꾸리기에 좋았다. 초?중?고 12년간을 해마다 한두 번씩 소풍지로 왔을 땐 이렇게 좋은 줄 몰랐었다.

원효대사가 이 산 자락에 길상암과 도림사를 창건할 때 이 산이 상서롭게 움직이며 노래가 울려 퍼졌다고 전해지는 동악산(動樂山)의 '樂' 자가 '락(樂)'이 아닌 '풍류악(樂)' 자이기 때문이며, 즉, 음악이 울리는 산이라는 뜻을 가진 산이라고 해설사 역할을 하였다. 청류동계곡이라 부르는

동악산 반석위의 맑은 물이 미끄러지는 아름다운 운치를 맛보며, 소중한 가족인 우리 일행은 오목 조목 사연도 새기는 산책길처럼 더디 가며, '아따 산에 온 게 좋다.'고 탄성을 지르며 모처럼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산사와 아홉 구비 골짜기 한 굽이 한 굽이마다 나를 낮추어 자연을 즐길 수 있어 좋았다. 특히 청류동 암반 계곡류와 노송이 어우러져 한 폭의 동양화가 일행을 맞이했다. 무엇보다 1곡에서 9곡까지 너른 바위 위로 맑은 계곡물이 미끄러지듯 흘러 내려 예로부터 '삼남 제일의 암반계류'로 통하는 이곳 바위에는 풍류 묵객들이 새겨놓은 한시 글귀가 또렷해 타임머신을 타고 옛 선인들과 교류하는 느낌마저 들었다. 반석의 글귀가 여기저기 프랑카드처럼 보이는데 사진 담기에 부심한 일행을 보니 '아따 산에 오길 참 잘했다!'는 감

탄이 저절로 나왔다.

동악산의 산사 도림사는 신라 무열왕 7년(660)에 원효대사가 화엄사로부터 이주하여 지었다고 한다. 도선국사, 사명대사, 서산대사 등 도인이 숲같이 많이 모여 들었다 하여 이름 붙여진 도림사(道林寺) 탕화, 현판, 단풍나무 연리지 ---

동악산(735m) 정상 부근에는 전망이 좋아 신선이 쉬어간다는 신선바위 밑에서 목을 축였다. 산행이야말로 최상의 보약 중에 보약이요, 에너지 충전의 쉼터이다. 이쯤깊이라도 하듯 동악산의 장중한 산세를 뽐내며 계곡 따라 발원하여 흘러나오는 맑은 물과 짙은 숲속을 거닐며 피톤치즈 향기에 흠뻑 취한 자녀동반 동악산 산행은 약 3시간 정도 즐기다 정상부근에 도착했다. 곡성의 진산 능선에서 내려다보이는 곡성고을의 평화로운 시골 들판 길을 바라보며, 곡성팔경 중의 하나인 동악조일

(動樂朝日)의 아름다운 해돋는 풍경과 곡성의 풍요로운 정취를 맛볼 수 있어 곡성인으로 태어난 것이 더욱 뿌듯하고 행복하기 그지없었다.

글 / 빙신호



### 의절의 터

## 곡성 6.25와 비극의 현장 태안사

평화를 위해 전쟁을 기억하라고 했다. 역사가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는 것은 지난 날의 교훈을 잊지 않고 되새길 수 있기 때문이다. (최용호, 전쟁과 평화연구소, 2012) 우리 민족 역사상 최대의 비극인 6.25전쟁이 발발한 지 65년을 맞이한 오늘, 전후 세대인 젊은이들은 전쟁의 참상이 무엇인지 전혀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호국보훈의달을 맞이하여 우리 고장 태안사 경찰충훈탑에 봉안된 호국영령들의 전쟁배경과 경과, 남겨진 과제 등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새겨 보고자 한다.

'태안사 경찰충훈탑 비문'을 비롯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 건립배경(관리번호 55-25)'에 의하면, 1950년 6.25 동란이 발발(勃發)하자 파죽지세(破竹之勢)와 같은 북괴 남침의 강세에 직면한 곡성경찰서장 예하(隸下) 전 병력은 1950. 7. 24일 우리 고장 곡성을 "최후까지 사수하라"는 경찰국 작전 지시에 의하여, 구국의 일념으로 그들의 목숨을 오로지 조국에 바칠 것을 결의했다. 곡성읍내 주민들의 피난 행렬이 시작된 7월 25일, 한정일 경찰서장과 300여 명의 곡성경찰은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봉두산 기슭 태안사 경내에 작전지휘본부를 설치, 방어태세를 구축하고 전격적인 유격전을 전개했다.

7월 26일 곡성읍내 낙동원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주최하는 곡성해방 기념연회가 열렸다. 순천에 주둔중인 북한군 제 603 기갑연대가 남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압록교를

통과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압록교 부근에서 매복 작전을 펼쳤다. 7월 29일 12시 30분경 북한군이 압록교를 지날 때 총 공격을 강행, 4시간 가량 치열한 교전 끝에 52명을 사살하는 등 적군을 섬멸하는赫赫(赫赫)한 전공을 세웠다. 수많은 적과 조우(遭遇)하며 유격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운명의 날 8월 6일 06시, 날이 밝기가 무섭게 북한군 105연대와 중공군 중심의 6사단 15연대가 태안사를 옥죄이며 총 공격을 개시해 왔다. 연대 병력이 기습적인 총격을 감행하자 비상선을 달리하며 싸웠으나 중과부적(衆寡不敵)으로 모두 48명의 경찰관이 처절하게 희생되고 말았다.

당시 정순석 경감은 전날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희생정신과 투혼으로 장렬히 산화한 경찰 동지들을 생각하며 슬픔을 노래했던 시가 전해오고 있다.

벌레소리 그쳐서 밤은 저물어/ 이슬은 고요하게 총에 젖는데/  
말없는 동자는 어디로 갔나/ 태안사의 조각달은 슬프기도 하다/  
죽음을 서로 같이 맹세했더니/ 총화에 나란 남아 외로웁구나/  
동지의 옛 모습 눈에 그리니/ 태안사의 조각달은 처량도 하다/  
(지은이 : 정순석 경감)

**태안사 경찰충훈탑, 기리지 호국정신**  
경찰충훈탑은 우리 고장 죽곡면 원달리 천년고찰 구산선문 태안사 경내에 위치하고 있다. 1960. 8. 6. 태안사 경찰참

전동지회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이들 호국영령들의 한 맺힌 넋을 위로하고 영세불망(永世不忘)의 표징으로 삼고자 경찰충훈탑을 건립하였다. 호국의 신으로 산화한 영혼을 48계단 위에 세워진 경찰위령탑에 봉안하여 이와 같이 숭고한 호국정신을 후세에 기리기 위해 매년 8월 6일 태안사 작전 전사 경찰관 위령제를 거행하고 있다.

이 경찰 충훈탑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한 분들의 공훈을 기리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겨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글 / 빙신호



### 곡성 속에 상생

## '충정공 마천목'

한국에서 아름다운 길에 선정된 오곡면에 서 압록까지 이어지는 구간에는 철길·꽃길·국도·자전거길·섬진강줄기 이렇게 5개의 길이 10km이상을 나란히 달려가는 그 자체가 곡성의 또 다른 그림 같은 명품 길임을 알아 볼 수 있다.

해마다 4월 하순경에 만개한 철쭉의 자태는 15년가량 자라서 분홍, 빨강, 흰색 철쭉꽃 군락으로 어울어져 전국에서 몰려 온 관광객이 크게 봄비는 화사한 길이다.

레일바이크 시발점인 침곡역과 송정마을 길을 따라 가노라면 17번 국도 변 고달면 두계마을 섬진강가에 1999년 곡성문화원에서 세운 '마천목과 도깨비살' 표석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 일행은 여기에 적힌 전설을 읽어 보고 강 건너 도깨비마을을 탐방하게 되었다.

이곳에 들어서니 마천목 관련 '장흥마씨 중앙종회 팸플렛'이 먼저 눈에 띄었다. 역사

화한 사진해설과 진열된 모형인 약사, 복권, 시비, 장건 하사비 등을 스크랩하고 난 뒤 '동국여지승람 및 청장관전서'에서 인용한 조연(조장, 김선범) 등 참고자료를 수집하여 공의 약사를 간략하게 서술해 보았다.

마천목(1358~1431) 공(公)은 고려 공민왕 21년(1372년)에 장흥 회령(현.보성)에서 태어나 15세 (1372년)되던 해에 전 가족이 현,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당산촌으로 이사하였다. 원래 신체가 강건해 힘과 무예가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머리가 명석하여 모든 경서(經書)에도 능통하였다고 한다. 공은 1381년(고려우왕 7년) 23세 때, 산원(散員)으로 임명을 받은 뒤, 조선조 개국시에 대장군(大將軍)에 이르렀고, 1398년에 일어난 『제 1차 왕자의 난』 때에 방원을 도와 상장군(上將軍)이 되었다.

『2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여 1401년(태종 1년)에 익대좌명공신 3등에 녹훈되었고,

회령군(會寧君)에 책봉되면서 동지총제(同知總制)로 승지 되었다.

1409년 9월 감순청(監巡廳)에 재직시, 고을귀(高乙貴)를 문초하던 중 치사(致死)한 사건으로 청죄(請罪)를 받았으나 태종의 배려로 '고향인 곡성'으로 유배되고, 그해 10월 전라도 도절제사에 복직되었다.

1412년부터 전라도 병마도절제사판 나주목사로 파견되었으며 1414년에는 장흥군(長興君)에 봉(封)하여졌다.

그 후 여러 관직을 거쳐 병조판서(兵曹判書)에 성보론(城堡論)을 상소하여 조선 초기에 처음으로 북방 6진(鎭)의 설치를 주장하였다. 또한 세종대왕 3년(1421년)에는 명나라에 가서 조선조(朝鮮朝) 승인에 공을 세워서 태상왕(太常王)이 낙천정에서 치하연(致賀宴)을 베풀기도 하였다.

공은 효성이 남달라 당시 '곡성현 오곡'에 살고 계신 홀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하향

하여 상을 당할 때까지 극진한 효도를 하였다 한다.

1428년에는 장흥군(長興君)에 복직 부원군(府院君)으로 1431년 1월25일 74세를 일기로 생을 마쳤다.

특히 공이 돌아가시자 세종은 3일 동안 조회(朝會)를 정지하고 예관(禮官)에게 명하여 치제(致祭)를 하게하고 영의정에 추증하였다.

공은 현재 화산서원(火山書院), 충현사에 배향(配享)되었다.

무엇보다도 공은 곡성 속에 상생하며 공이 자란 곳, 유배지, 부모 봉양지, 공을 기리는 사당과 묘소가 있기에 생생한 문화혼적으로 가슴에 남아 효심의 가치와 의미를 주는 산실이 되고 있다.

글 / 빙신호



● 곡성예찬 ●

# 곡성의 관광은 이제 시작이다



곡성! 분명히 축복받은 땅이다. 천혜의 자원이 산재되어있는 보물 창고 중의 창고이다. 지명을 통해서도 금방 알 수 있듯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골짜기곡(谷), 재성(城)을 사용할 정도로 산과 재가 많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넘었다고 전해져 내려온다. 그곳을 넘나들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줬던 산등성이와 골짜기가 이제는 천혜의 산림자원이 되어가고 있고 섬진강과 보성강, 그리고 적당한 높이의 산간 내륙지역의 지형적 이점이 과실의 맛과 향이 깊은 차별화 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해준다. 이제는 더 나아가 치유의 숲과 같은 최상의 쾌적한 환경을 통해 명상과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해준다.

‘곡성의 관광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싶다. 이제까지 미처 알지 못했던 작고 대수롭지 않는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 곡성이다. 지금 섬진강가 17번 국도변 10km 구간이 울긋불긋 철쭉꽃들의 향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레일바이크 5km 구간은 30년생 철쭉꽃을 기점으로 15년생 철쭉단자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철쭉꽃의 향연은 4월 말경 보름기랑 절정을 이룬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갖길 주차장을 조성했다.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의자도 마련되어있다. 그 의자에 앉아 섬진강 건너편의 아담한 숲속의 신록을 바

라보면서 느끼는 봄의 정취는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기운을 발견하기에 충분하다.

섬진강과 국도 그리고 레일바이크 길 삼박자가 어울려 있는 내 고향 곡성이 언제부터인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라이브 길로 각광을 받더니 급기야는 사진작가들의 명소로 급부상하였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첫째가 섬진강 길이다. 섬진강은 대한민국에서 한강, 낙동강, 금강에 이어 네 번째로 길고 큰 강이다. 영산강은 그 다음이다. 진안과 장수읍의 경계인 팔공산 8부 능선에 있는 데미샘에서 발원하여 임실 순창 남원 곡성 구례 하동을 거쳐 남해로 흐르는 길이다. 전체 구간 225km(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중 곡성은 46km에 해당된다. 대한민국 5대강 중 가장 깨끗하고 맑은 강이 섬진강이다. 섬진강은 한강이나 낙동강과 같이 폭이 넓지 않고 밧줄을 강 양쪽에 걸쳐놓고 나룻배를 띄울 수 있을 만큼 아담하고 잔잔한 시골 친정집과 같은 강이다.

그리고 그곳에 서식하고 있는 피라미, 은어, 메기, 참계, 다슬기와 자연 그대로 살아숨쉬고 있는 생태환경은 어떤 물리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임에 틀림이 없다. 그 옆으로 2014년에 새로이 완공된 자전거 길이 구례를 거쳐 하동까지 이어진다. 자전거를 타고 이른 아침 섬진강가에 피어나는 물안개를 보면서 맑은 공기를 쐬어보는 자체가 최고의 힐링이다. 자전거

길 바로 옆 수양버들 가로수 길이 17번 국도이다. 국도와 레일바이크길 사이로 철쭉길이 이어진다. 그리고 레일바이크 길 사이로 우측 편백 숲속에 조성된 둘레길이 또한 소소한 아름다움을 더해준다. 붉게 만발한 철쭉꽃들의 행렬에 취할 무렵이면 레일바이크 종착역인 가정역에 도착한다. 건너편에는 청소년수련원과 섬진강천문대가 있다.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남해대교의 축소판인 출렁다리를 건너야 한다. “다리를 건너면 정말 출렁거릴까?” 의구심이 생기지만 금세 사실로 드러난다. 그곳에서는 절대로 뛰면 안된다. 다리가 출렁거리려 다른 관광객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출렁다리 중간쯤에는 교판 중심부를 투명유리로 제작해 놓은 곳이 있다. 잔잔히 흐르는 강물 위를 공중에서 직접 걷는 듯한 아슬아슬한 짜릿함을 살짝 체험하게 된다. 다리위에서 바라보는 맑은 강과 산과 나무 그리고 불어오는 산들바람, 이러한 자체가 소소하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 아름다움을 관광객들에게 선사해 주고 싶다.

“곡성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습니까?”

이 말은 그곳을 찾는 관광객의 감탄사가 아닌 가깝지 않은 지역 주민의 실제 이야기란 사실을 끝으로 강조하고 싶다.

곡성군의회 부의장, 곡성문화원 회원 주성재  
곡성군의회 부의장 주성재

## 섬진강 생태문화 기행

# 아름다운 섬진강 곡성, 영호남 화합의 물길따라



곡성로곡나룻터배

섬진강은 전북 진안군 백운면 신암리 팔공산 상추메기골 데미샘에서 발원하여 광양 배알도 까지 흘러내려오는 동안 오수천 요천 보성강(대항강) 등이 유입되는 유로연장 225km 유역면적 4,986km<sup>2</sup>. 남한의 5대강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강중의 하나이다. 전라북도의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남원시, 전라남도 곡성군 섬진강 제1지류인 보성강(대항강)은 장흥군, 보성군, 화순군, 곡성군 압록에서 합류하여 구례군, 순천시, 경남 하동군, 전남 광양시 경계에서 남해에 이른다.

섬진강 본류는 3개도 3개시 7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은어, 다슬기(대사리) 40여종의 담수 생태가 살아있는 강이다. 옛날에는 남해 앞바다에서 상선소금배가

임실까지 들어와 교통수단으로 이용했다고도 한다. 그 당시엔 섬진강 수량이 얼마나 많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섬진강이라는 이름은 본래 고운 모래가 많아 가람 다사강이라고 불리웠다. 고려 초기에 두치강으로 불리웠으며 1385~고려우왕11 경 섬진강 하구에 외구가 침략하자 수십만 마리의 두꺼비떼가 울부짖어 외구가 광양쪽으로 피해갔다고 하는 전설이 이때부터 두꺼비 섬(蟾)자를 붙여 섬진강이라고 했다고 한다.

2005년도 하구역 생태계 정밀조사 결과에 의하면 섬진강 하구역은 붉은발발통게, 일본제척 기수우렁이 등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지역의 고유한 생물상이 잘 나타난다. 섬진강 및 수호천 하구역에서 확인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양생 동식물은 1급(노랑부리백오) 11급7종(호사비오리, 말뚝가리, 알락꼬리마도롱, 붉은발발통게, 독수리, 흰목물떼새, 기수갈고 등) 등 총 8종, 흑기러기, 큰고니 등 조류 9종 등 고유생물종이 다수 분포 되어 있다.

데미샘에서부터 하천을 따라 오다보면 진안 백운면의 150년 된 물레방앗간과 진안 성수면에 신비의 풍혈냉천이 있는데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보존 할 가치가 있다.

임실군 방수리의 방수천은 수백년된 귀목나무들이 천변을 따라 숲을 이루어 한여름의 자연 위락지로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다. 방수천을 지나 임실군내에서 손꼽히는 명승지 관촌 사선대가 있다. 옥정호를 지나면 섬진강댐이 있다. 우리나라 곡창지대인 호남평야의 젖줄은 동진

강이 있었지만 하천 유량이 절대 부족하여 수원이 풍부한 섬진강 물을 유역변경에 의하여 운암재(구 댐)를 건설하여 전력 생산에 필요한 용수를 확보하고, 관개용수 공급 능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규모 댐을 건교부에서 1961-1965 완공하였다.

전라남도 곡성 청계동 유원지를 지나 곡성 자연생태 공원을 조금 지나면 섬진강 지류인 남원 요천이 흘러들어 섬진강과 합류하여 어족 자원이 풍부하여 낚시인이 많은 곳이다. 남원시 광한루가 있는 그 앞에 흐르는 요천을 아름답게 꾸며 유원지가 형성되어 있다.

요천이 섬진강과 합류하여 흐르는 곳에 곡성군 기차마을이 있다. 구 역사를 활용한 강변 레일바이크 철길은 철쭉꽃이 필 무렵 아주 환상적이다. 도깨비살이 있고 압록 유원지가 있다. 압록 유원지는 섬진강 1지류인 보성강이 합류하는 곳이다. 보성강은 순천 주암댐이 있고 주암댐은 전남 서북권에 일일 640천 톤의 생활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곡성 압록에서 하천을 따라 구례군 간전면에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된 수달(천연기념물 제330호) 서식지가 있다. 구례 연곡사 계곡에서 흘러 내려오는 깨끗한 물이 합류 되고 그곳을 지나면 영호남 화합의 장터 경남 하동 화개장터가 있다. 국도 19번도로 빗꽃 길을 따라가면 하동 송림 유원지가 유명하며 남도 대교를 건너 광양시 망덕포구와 배알도에 닿게 된다. 배알도 해변 공원에 해안 산책로 대크 등이 잘 갖춰져 있어 여름철 휴양지로 유명하다.

푸른곡성21대표 박정수

## 곡성군새마을회

### 더불어 사는 공동체, 행복한 군민을 위하여!



곡성군새마을회(회장 박준식)의 산하단체로는 4개의 단체가 구성되어 있다. 새마을지도자 곡성군협의회(군회장 심기섭), 곡성군새마을부녀회(군회장 강인순), 직장공장새마을운동곡성군협의회(회장 김신환), 새마을문고곡성군지부(회장 김재걸)는 271개 새마을지도자들과 새마을부녀회원 등으로 조직되어 군민의 건전한 생활품도를 조성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새마을운동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 행복한 국민이라는 슬로건 아래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제2 새마을운동 실현을 위한 나눔, 봉사, 배려의 국민정신으로 4대 중점과제인 문화공동체운동, 이웃공동체운동, 경제공동체운동, 지구공동체운동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문화공동체 운동은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사회갈등 해소와 군민화합, 공동체정신 함양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도자기본과정, 정책연찬, 프로그램실무과정, 중학생 특별 수련과정 등 4개 분야 4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독서문화운동의 일환으로 문화?예술 재능기부동아리를 조직·운영하고 있으며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에 참여하여 수상한 바 있다. 품격 있는 사회 만들기를 위하여 국경일 국기달기, 무궁화동산 만들기 등 나라사랑 운동을 전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른 음주, 우리말 바르게 사용하기 등 건전문화 실천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그리고 양보?배려하기, 정지선 지키기 등 법?질서 지키기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웃공동체운동으로 나눔문화 확산, 돌보미 운동, 주민생활 안전망 구축에도 적극 활동하고 있다.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민 1% 나눔 운동으로 후원회원모집, 재능봉사, 자원봉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학생 농촌 봉사활동 지원에도 힘써 농촌체험활동을 통한 농촌생활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돌보미 운동 전개로 홀로노인, 특생계층,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 대한 사랑의 옷 나누기, 쌀, 연탄, 생필품 나누기와 사랑의 김장나누기, 도배, 장판, 보일러, 전기시설 등 사랑의 집고쳐주기, 떡국?송편 나누기를 비롯한 명절맞이 새마을운동 등을 실시하여 칭송이 자자하다.

뿐만 아니라 주민 생활안전망 구축에 힘써 방법?방역보



사단 운영,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약추방운동 등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경제공동체를 추구하며 도·농 한마음 운동으로 도·농자매결연, 지역축제 상호교류방문, 지역문화 소통하기, 우리농산물 직거래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원순환사회 만들기 운동으로 3R 자원재활용품 수집운동, 헌옷, 고철, 폐지, 병, 플라스틱, 비닐 수거 수익금의 소외계층 돕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퇴비화 등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운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범국민 100W줄이기 절전운동과 온맵시(내의입기)로 따뜻한 겨울나기 운동을 펼치고 내 집 앞 내가 쓸기, 새마을대청소, 캠페인 등 생활환경운동으로 국민화합에 기여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협력사업을 전개하여 부녀회와 1:1 생활 멘토링을 실시하고, 다문화여성 친정 생필품 보내주기 등 지구공동체 운동에 헌신하고 있다. 자료제공 : 곡성군 새마을회 사무국장 안군식

## 재광곡성군향우회

### 고향 발전 · 헌신 봉사 · 재능기부 · 고향사랑 실천



재광곡성군향우회(회장 박찬웅)는 광주광역시에서 거주하는 향우들의 친목도모와 고향발전을 위해 1952년 결성된 이래 63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2013년 12월에 제20대 박찬웅회장이 취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향우회 조직으로는 전임 회장단과 자문위원단, 사무국, 부회장단, 원로회, 여성회, 청년회 등을 두고 있다. 짝수 달에 월례회를 하고 있으며 매 월례회 때마다 100여명 이상의 향우들이 모여 친목도모와 고향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고 있고, 홀수 달에는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매년 12월 첫째 주 금요일에는 500여명의 향우들이 참여하여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갖고 있다. 또한 매년 설날과 추석에 11개 읍면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2가구씩을 추천받아 생활필수품을 전달하고 있다.

작년 부터는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고달면과 입면을 필두로 전기보수공사가 필요한 가구를 1~2곳 추천 받아 전기 안전 점검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전기보수공사에는 전기전문가인 고달면 출신 김영수부회장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재능기부 활동을 더욱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 고향과의 유대강화를 위해 11개 읍면 민민의 날 행사와 곡성군청년연합회 한마음대회, 장미축제, 검면목화축제, 석곡코스모스축제, 심청축제 등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장미축제와 심청축제 때는 향우들이 광주에서 활동하는 단체 회원들과 함께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등 고향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다.

재광곡성군향우회 사무국장 이준평

## 명강 총동문 단합대회

## 경로 위안잔치 화합 한 마당



고향을 떠난 타지생활은 세월이 흘러 갈수록 더 더욱 고향이 그리워지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닌가 싶다. 그렇게 남겨진 아쉬움을 우리 명강 동문님들은 40여년 전 1968년부터 시작된 동문회를 발판으로 1994년 급변하는 시대 속에 학교가 폐교되고 동문회가 잊혀질 때까지 후배 양성과 고향의 발전을 위해 많은 선배님들이 집집마다 쌀·보리 한 되의 힘으로 후배들에게 힘을 쏟아주셨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폐교된 모교 석곡명강초등학교 교정 한구석에서 2007년 8월, 고향발전은 물론 선후배간 친목과 고향을 지켜오신 노부모님 생각에 열의가 가득하신 선배님들이 함께한 가운데 오규섭회장(25회)을 추대하여 지난날 선후배님들의 열정과 그 뜻을 모아 이여가기로 결정하고 동문회를 새롭게 재정비했다. 2008년 4월부터 정성을 다한 음식과 많은 선물을 준비하여 선후배가 모여 정을 쌓고, 자식들 뒷바라지에 세월 가는 줄 모르고 희생하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 고향어르신들을 모시고, 총동문회 및 경로 위안잔치를 개

최하였다. 그 후 오규섭회장에 이어 진형장회장(24회), 표천식회장(27회)에 이르기까지 매년 4월말에 서울, 부산, 광주 등 각 지역에서 1회에서 43회 막내까지 500여명이 적극적으로 꾸준한 참석하신 가운데 경로위안잔치를 성대하게 개최하고 있다. 지난시절 그 크게만 보였던 운동장을 허리가 굽으신 고향의 어르신 부모님과 함께 초대가수 각설이 타령에 맞추어 뛰고 달리고 춤추고 노래하며 재롱 피우던 어린시절을 온몸으로 느끼며 즐겁고 신나는 경로 위안잔치에 모두가 행복과 보람을 만끽하는 하루를 보내고 있다. 매년 아버지 날에 고향에 찾아오는 계기도 마련되어 동문회 경로위안잔치 그 날이 그리워진다는 고향 분들의 말씀과 칭송이 자자하여 흐뭇하고 감사하기 그지없다.

8회째 맞고 있는 이 행사를 2015년 금년부터는 매년 최장수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마을을 효·장수 마을로 선정하여 상패와 상금을 전달함으로써 다시 한 번 더 고향 어르신을 섬기고 모시는 나눔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우리의 고향 곡성 효녀 심청의 효를 이어받아 고향 선후배는 물론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본받고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지속적인 만남과 경로효친의 실천적인 장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곡성 석곡 명강인의 자랑과 긍지로 영원히 남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석곡명강교 28회 김상근.



2015 도농교류협력사업



영호남 곡성군 · 구례군 · 하동군  
22개 농촌체험마을이 함께하는

# 섬진강 행복어울림 도농교류 프로젝트



## 농림축산식품부 도농교류협력사업

도농교류 · 농촌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촌체험 외에 직거래 장터 개설, 기술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체험분야”와 “비체험분야”로 구분하여 선정 · 지원

### ▶ 체험활동 분야

섬진강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촌 및 농업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도시민을 모집하여 농촌(농촌 체험휴양마을 등)을 방문하여 다양한 체험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도농교류의 기반 마련

- \* 주요 체험내용 : 농작물재배 · 수확체험, 농촌생활체험, 전통문화체험, 자연생태체험 등
- \* 체험활동은 농촌체험휴양마을 또는 인성학교에서만 가능(공개모집 원칙)
- \* 체험활동은 가급적 관광주간(봄: 5.1 ~5.11, 가을: 9.25 ~10.5)과 여름휴가 기간을 권장

### ▶ 비체험활동 분야

체험활동 외 농산물 직거래, 농촌창업, 6차산업화 등 지원, 로컬푸드 활성화 등 도농교류를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 농촌공동체 회복 등에 기여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운영 · 관리 지원



## 전남 곡성군 농촌체험마을

체험문의 및 신청  
곡성문화원 Tel 061\_362\_0890 Fax 061\_363\_7300

### 두계 외갓집녹색농촌체험마을

섬진강과 접하고, 초록빛의 아름다움과 온갖 산새들이 지저귀는 노래 소리가 남아 있는 아름다운 마을  
예약문의 : 070,7724,5587  
전남 곡성군 고달면 두가리 494-1번지 \_ www.dugye.co.kr

### 가정 녹색농촌체험마을

섬진강 줄기 강 따라 자연거 하이킹을 하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할 수 있음  
예약문의 : 061,363,1637  
전남 곡성군 고달면 두가리 682-1번지 \_ www.gjvill.kr

### 봉정(아리울) 녹색농촌체험마을

마을안길, 수백년된 느티나무, 편백나무숲 산책길이 아름다운 마을로 전통쌀엿과 쏙인절미 만들기, 친환경농사 체험 등  
예약문의 : 010,2692,1758  
전남 곡성군 죽곡면 봉정리 815번지 \_ http://봉정마을.kr/

### 하늘나리 농촌전통테마마을

꿀처럼 달콤하고 하늘처럼 깨끗한 산골마을 작은 골짜기를 사이로 등산로가 있음  
예약문의 : 010,9038,8341  
전남 곡성군 죽곡면 상한길 261-1 \_ www.nari350.kr

### 죽산 녹색농촌체험마을

예부터 마을 동산에 죽림이 무성하여 살기좋은 곳  
예약문의 : 010,8704,4236  
전남 곡성군 검면 운교리 468-13

### 봉조 팜스테이마을

섬진강이 흐르는 산세가 포근한 계곡속의 평화로운 마을  
농촌 전통문화체험, 자연속의 민박  
예약문의 : 061,362,5268  
전남 곡성군 옥곡면 봉조리 15-1번지  
http://www.bongjori.com \_ bongjori@naver.com

### 무창 녹색농촌체험마을

친환경으로 재배한 황등쌀, 사과등이 많이 생산되고 주변에는 심정문화센터, 옥과미술관, 성류사, 설산, 섬진강자연학습원이 있음  
예약문의 : 010,5117,4258  
전남 곡성군 옥과면 무창리 1164-16번지  
www.mcfam.co.kr

### 용암 농촌체험마을

예약문의 : 062,362,0990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구룡길

### 칠봉목화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예약문의 : 061,363,7381, 010,4131,1049  
전남 곡성군 검면 칠봉길 78 \_ www.cotton-vil.co.kr

## 경남 하동군 농촌체험마을

체험문의 및 신청  
하동농촌체험마을 협의회 010\_5333\_3680

### 의신 농촌체험마을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1405-4  
“의신 베어빌리지” \_ www.bearvillage.co.kr

### 직진 농촌체험마을

경남 하동군 북천면 경서대로 2253-21

### 모암 농촌체험마을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 하늘땅번지 농촌체험마을

경남 하동군 악양면 신흥길 159

### 중서 농촌체험마을

경남 하동군 적량면 중서리 22

### 정티움 농촌체험마을

경상남도 옥종면 대록리

### 입석 농촌체험마을

경남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291

### 북방 농촌체험마을

경남 하동군 옥종면 북방우회길 7-4

### 평사드레 농촌체험마을

경남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92

### 명사 농촌체험마을

경남 하동군 청암면 명사길 382-10

## 전남 구례군 농촌체험마을

### 종자들오미동 농촌체험마을

예약문의 : 061,781,5225 / 010,3652,8848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 운조루길 49-1

### 상사 농촌체험마을

전남 구례군 마산면

### 섬진강 농촌체험마을

전남 구례군 마산면